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미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회 회원사들(2010.11. 현재 122개 업체) 및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은 우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고, 다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지원²⁾할 수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회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목 차 >

□ 네덜란드·벨기에 내륙항만 Benelux항 개발 고려 중 -----	2
□ 볼리비아정부, 신규 컨테이너 바지선 서비스 개설 예정-----	3
□ 베네주엘라, 이란, 니카라과 공동 'Nicaragua 운하' 건설 추진-----	4
□ 유럽투자은행(EIB), 모로코 Tangier Med 2단계 2억 유로 지원 -----	5
□ [알림]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	6

1) 연락처: 김찬호 책임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이진주 연구원(02-2105-2982, jinjoo@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네덜란드·벨기에 내륙항만 Benelux항 개발 고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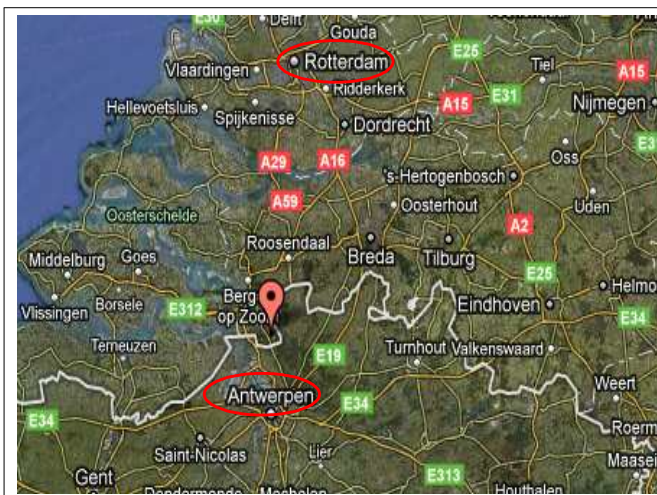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벨기에 앤터워프항을 내륙수로 연결하고, 내륙거점항만으로 Benelux항을 개발하기 위한 두 나라간의 공동연구가 수행 중임
 - 동 항만개발은 서유럽의 내륙수로 운송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륙항만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동연구는 인프라 시설투자 및 구체적인 항만 framework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내륙항만으로서의 Benelux항 뿐만 아니라, Paris항과 Duisburg항 개발계획도 함께 고려 중에 있음
- 로테르담항과 앤터워프항은 각각 세계 10위, 14위 항만(2009년 기준)으로 물동량은 아래의 표와 같음

(단위 : 천TEU)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로테르담	9,251	9,655	10,791	10,800	9,743
앤터워프	6,482	7,019	8,176	8,663	7,310

자료 : CI-Online

<Benelux항 위치>



<Benelux항 현황>



자료 : Port of Rotterdam/ Port of Antwerp / Dredgingtoday 2010. 11. 16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볼리비아정부, 신규 컨테이너 바지선 서비스 개설 예정

- Land-locked 국가인 볼리비아의 정부는 지역 선사인 Nautica사와 공동합작을 통해 Bolivian de Navegacion(BONA)사를 설립하고 2011년 10월부터 컨테이너 바지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신규 서비스는 브라질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볼리비아 동부의 Suarez항을 기점으로 아르헨티나의 Rosario, Buenos Aires, 우루과이의 Montevideo를 연계하는 주간서비스로, 평균 투입선박은 320TEU급(100 reefer plugs 포함)임
- 향후 신규 서비스는 냉동육, 커피, 콩, 목재, 대두 등을 수출하고 생활필수품, 기계류, 자동차 및 프로젝트 화물 등을 수입하는데 이용될 계획임
- 볼리비아 정부가 민간선사와 합작하여 컨테이너 바지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land-locked 국가로써 도로와 철도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낮추고 도로, 철도, 수운 등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물류비를 낮추기 위함임
- 아울러 볼리비아 동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및 대두의 수출루트를 확대하기 위함임



<Suarez항 위치>

장 큰 문제는 Suarez항이 위치하고 있는 파라과이 강(Paraguay River)의 준설에 대한 국가(브라질, 파라과이)별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임

※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river port는 볼리비아 중부 산타크루즈 (Santa Cruz)지역 Canal Tamengo에 위치하고 있는 Central Aguirre항과 Gravetal항이며, 볼리비아 정부는 철광석과 대두의 수출항으로써 동부 볼리비아 지역에 Busch항과 Suarez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 특히 Suarez항은 철도, 도로 및 수운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가능한 항만으로 브라질, 북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됨

※ 그러나 신규서비스 및 Suarez항 운영에 있어 가

자료 : CI-Online, 2010.11.17. / Wilmsmeier, G., Sanchez, J. R. Landlocked Countries in South America Transport System Challenges. CEPAL. 2009. 03.

김찬호 책임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 베네주엘라, 이란, 니카라과 공동 'Nicaragua 운하' 건설 추진

- 최근 Nicaragua와 Costa Rica의 국경을 따라 흐르고 있는 San Juan강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면서 니카라과 대통령은 이 지역의 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Nicaragua 운하' 건설을 추진하고자 함
 - Nicaragua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19세기부터 나왔으나, 파나마 운하 건설 및 확장 등에 의해 건설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란과 베네주엘라의 큰 관심으로 니카라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니카라과 외교부는 코스타리카에 운하 관련 계획을 알렸으며, 코스타리카에서도 운하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음
- 'Nicaragua 운하' 건설은 베네주엘라와 이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의 경우는 2007년에 니카라과에 350백만달러를 투자하여 두 대양을 연결할 수 있을 도로건설을 추진한 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운하인 파나마 운하는 1914년 완공된 이후 매년 14천개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으며, 물동량은 약 190백만톤에 이름
- 파나마는 운하를 통한 수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운하가 경제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 : Dredgingtoday 2010. 11. 18

이진주 연구원(☎ 02-2105-2982, jinjoo@kmi.re.kr)

□ 유럽투자은행(EIB), 모로코 Tangier Med 2단계 2억 유로 지원

- 유럽투자은행(EIB, Europe Investment Bank)에서 모로코의 Tanger Med 2단계에 약 2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 FEMIP¹⁾을 담당하고 있는 필립드 폰텐 비브 EIB 부회장이 지난 11월 10일~11일 이틀간 모로코를 방문하여, 모로코의 172km 고속도로 확장에 2억 2천만 유로, Tangier Med 2단계 확장에 2억 유로 장기 대출을 시행함
 - EIB의 Tangier Med 지원은 1단계에서도 이루어진바 있으며, 하역장비 매입에 대해 약 4천만 유로를 지원한 적이 있음
- Tangier Med 2단계는 TC3과 TC4로 구성되며, 2015년 운영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임
 - TC3의 선석길이는 약 1,600m, TC4는 1,200m로 두 개 터미널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500만 TEU 정도로, 2단계 확장이 완료될 경우 Tangier Med의 연간 처리능력은 80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Tangier Med 2단계의 총 사업비는 약 8억 유로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지 하역사인 Marsa Maroc가 항만운영사로 지정되어 있음
 - 한편 2010년 상반기 Tangier Med 1단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868,978 TEU로 2009년 동기 대비 48% 증가함

※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14호 참조

자료 : CI-Online, 2010.11.17. / <http://www.euromedp.org> News 2010.11.15.

송주미 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1) Facility for Euro-Mediterranean Investment and Partnership. 2002년에 설립된 지중해 파트너 국가(알제리, 이집트, 가자/웨스트뱅크,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시리아 및 튀니지)의 통합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EIB의 재무 부문

□ [공 지] 인도네시아 물류·인프라 투자설명회 개최

- 일시 | 2010년 12월 13일(월)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후원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 프로그램

제1부 Opening Session	
13:30~14:00	등록
14:00~14:40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축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환영사 곽인섭 국토해양부 항만물류실 실장
14:40~15:00	기념 촬영
제2부 주제발표	
15:00~15:40	주제발표 1 _ 인도네시아 100대 물류·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계획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청 국장)
15:40~16:00	주제발표 2 _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손기태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서남아 팀장)
16:00~16:10	Coffee Break
16:10~16:30	주제발표 3 _ 인도네시아 물류시장 잠재력과 기업 진출 방안 (이성우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6:30~17:00	주제발표 4 _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가이드 (김관목 부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자카르타 무역관)
17:00~17:30	질의 응답 및 투자 상담

* 본 투자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추후 참가신청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관심기업은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미리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비용 지불),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